제8강 취미판단의 제2계기: 분량의 범주에 따른 고찰 (2)

(1교시)

◆ 주관적 보편성

※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에서 p.31~36, **§8.취미판단에서 표상되는 만족의 보편성은 단지 주관적인 것이다**와 p.36~40, **§9.취미판단에 있어서 쾌의 감정이 대상의 판정에 선행하는가 아니면 대상의 판정이 쾌의 감정에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**를 본다.

▲ '취미판단의 보편성'의 특징

- 쟁점 ■■ 취미판단은 감성적, 주관적 판단이다.
  ■■ 취미판단은 보편적 판단이다.

- 위의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히지 않고 동시에 옳을 수 있는 근거
  : 무관심성, 무규정성(무개념성)

(↔ 논리적, 객관적 보편성)
- 취미판단의 보편성은 감성적, 주관적 보편성이다.
  a. b.

  a. 쾌적과 비슷함
  b. 선과 비슷함

▲ 쾌감과 판정의 순서

- 취미판단에서 쾌감이 선행하는가, 판정이 선행하는가?
  ⇒ **판정이 선행한다.**
  : 어떤 대상을 접하고 쾌감을 느껴서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,
  판정이 선행하고 여기서 내려진 평가가 쾌감을 동반하는 것이다.

※ 판정(Beurteilung) : 평가, 감정, 판정 등의 의미. 반성적 판단력으로 행해진다.

- 왜 취미판단에서 쾌감이 선행할 수 없는가?
  ⇒ **쾌감이 선행한다면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다.**
  : 대상(대상의 표상) -----→ 쾌감
  후천적, 경험적으로만 확인된다. (경향성)
  쾌감이란 쾌적에 대한 감각에 불과하므로 일반성까지는 주장할 수 있지만
  보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- 쾌감과 판정의 순서

  ⇒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 ----→ 쾌감이 발생 ----→ 美를 판단

  : 대상의 합목적성을 판정하는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미에 대한 판단도 일어나지 않는다.

- 상상력 + 지성 ----→ 미적 판단

  ↑ ↑

  이미지 개념

  : 인식능력들의 관계가 조화로워야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.

(2교시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◆ 제2계기 정리

※ 앞 시간에 이어서『판단력 비판』**§9.취미판단에 있어서 쾌의 감정이 대상의 판정에 선행하는가 아니면 대상의 판정이 쾌의 감정에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**를 본다.

▲ 취미판단의 발생

- 대상을 접한다.
  →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와 지성의 합치: 인식 능력들의 균형 잡힌 조화
  →■■ 감정: 쾌감의 마음 상태
    ■■ 대상: 합목적성을 판단

▲ 취미판단의 무관심성과 보편타당성

- 상상력과 지성의 결합이 일체의 외적 제약 없이 무관심한 상태에서 일어나면
  ⇒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.

▲ 취미판단과 사회성

(1) 반성적 판단력의 준칙
  : **나의 판단을 항상 타인의 지평에서 타인의 판단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**
  ⇒ 취미판단은 이런 방식으로 보편성을 찾는다.

(2) 미는 도덕성의 상징
  : 진정한 취미판단은 **사회성**을 전제로 한다.

※ 쇼펜하우어, 니체, 아도르노 등은 칸트의 '무관심성'을 일체의 무념무상,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오해하여 칸트의 미에 대한 판단을 사회성이 배제된 것으로 오해했다.

▶ 참고자료 I
니체 [Friedrich Wilhelm Nietzsche, 1844~1900]

독일의 시인·철학자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주요저서: 『반시대적 고찰』(1873~1876)
『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』(1883～1885)
쇼펜하우어의 의지철학을 계승하는 '생의 철학'의 기수(旗手)이며, S.A.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지칭된다.

▶ 참고자료Ⅱ

아도르노 [Adorno, Theodor Wiesengrund, 1903.9.11~1969.8.6]
독일의 철학자·미학자·사회학자.
주요저서: 『권위주의적 인간』(1950), 『부정적 변증법』(1966)
프랑크푸르트학파의 중심인물인 아도르노의 사상은 체계성을 거부하고, 각 이데올로기 영역에 내포된 정신의 변질적 경향을 날카롭게 분석해내는 데 특색이 있으며, 근대문명에 대하여 독자적인 비판을 제시하였다. 또 그는 현대음악의 성격에 대해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바 있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